뷥뷥뷦뿻-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남다른 손재주를 가지고 태어나 그저 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새기는 것이 좋았다.
문패를 만들어 이웃에 선물도 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나무에 희망을 새겼다.
고등학교 2학년, 강화도 전등사에서 본 팔만대장경판과 탁본은 그에게 짜릿한 전율을 주었다.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다.
10여년의 원양어선 생활, 2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서각의 꿈, 지금 그는 화성전도의 목판 복원을 위해 장인의 혼을 불태우고 있다.

목판에 새긴 "희망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1>

제40호 서각장 이 규 남씨

1983년 공직생활중 본격적 서각의 길로…

탁본된 옛지도 '화성전도' 목판 복원 나서

1월 5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각자장 인간문화재 오옥진 선생에 사사

반백(半百)의 나이에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연륜이 녹아들었으면서도 이십대만큼이나 똘망똘망한 모습은 인생의 기품을 전함과 동시에 새내기 답다.

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 이규남씨(54·평택시 비전동). 지난달 5일 신규로 도지정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그의 모습이다.

"아직 모자란 것이 많은데 문화재로 지정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언가 성과를 이뤄내서라기 보다 가능성을 봐준 것이겠지요. 정진해야 할 생각을 하면 앞길이 구만리 같습니다."

자신의 것만이 최고라 말하는 여느 장인들과 달리 겸손한 몸 가짐이 구수하다. 벗겨진 그의 머리는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면서도 훈훈함을 안긴다.

서각은 흔히 목조각의 한 분야로 알려져 있지만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 그 역사는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면서 부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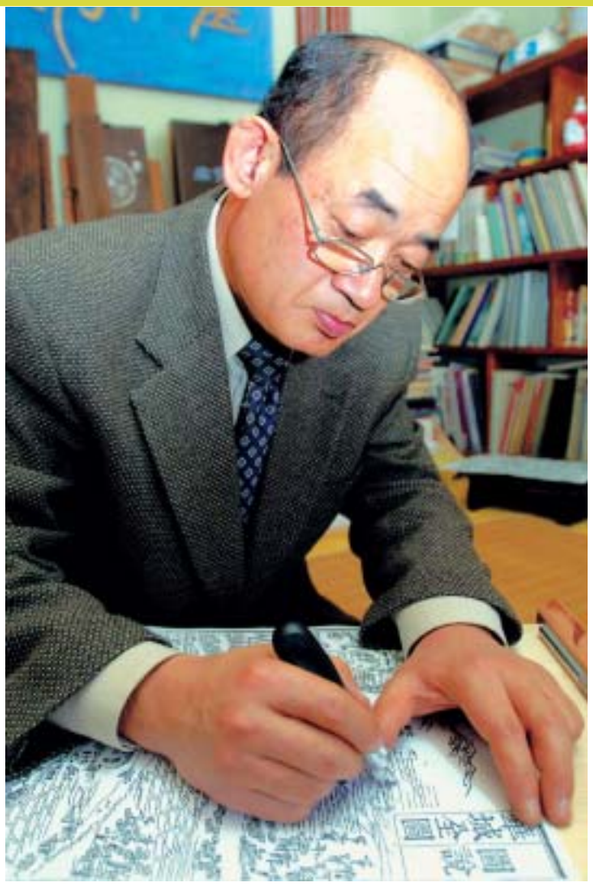
석재나 목재 또는 단단한 재질에다 회화나 문자를 기록하는 것은 태고적부터 전하는 인간의 표현 욕구다. 서양에는 기원전부터 전하는 법전이나 석각비가 있고 동양에서는 서예를 바탕으로 한 법첩(法帖)이나 탁본 등이 전한다. 이를 통틀어 각자(刻字;글자를 새김)라 한다.

"서각을 비롯한 각자는 인간 본능의 예술입니다. 활자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 있어 각자는 의사소통의 기록방식이자 미적 감각을 지닌 일종의 미술과도 같죠."

활자는 1세기경 중국에서 발명됐다. 처음에는 목판처럼 글자를 새겨서 한자 한자 잘라내는 나무활자의 형식이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활자로 만들어진 책은 13세기 중엽 고려 고종때의 '고금상정예문(古今祥定禮文)'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 알려졌다. 때문에 이 책이 나온 시기와 오래지 않아 활자가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선사시대의 경남 울주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 고인돌에 새겨놓은 각화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각자양식이 일상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고려때 제작된 세계적인 문화유산 '팔만대장경' 등은 우리의 목각판이 수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면면히 이어짐을 상징한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접어들고 왜란과 6·25 등의 내외 혼란을 겪으며 서각 등 각자가 급격히 쇠퇴한다. 왜침에 의한 우리말 말살정책은 활자에까지 이어져 점점 퇴색되고 만다. 각자양식을 조상대대로 이어온 기능인은 그래서 찾기 힘들다.



"서각에 있어서도 단순히 목판을 제작하는 외에 우리의 전통을 이어온 모습은 드물죠. 저 역시 처음에는 혼자 재미 삼아 이것저것 만들어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저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고 때론 문패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이씨가 서각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의지'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어렸을적부터 남다른 손재주로 나무를 다뤘다. 나무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남의 이름을 넣어 선물하곤 했다.

그러던 중 고2때 강화도 전등사에서 팔만대장경판 및 탁본을 보게 됐다. 이때 그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단다. 순간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이 그의 다리를 꼼짝없이 마비 시켰으며 뒷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별이 반짝반짝 보였다.

"아, 그때의 감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말하라면 지금도 잘 설명할 순 없어요. 하지만 쓰기도 어려운 글자를 나무에다, 그것도 써 내려간 것 보다 훌륭히 새겨진 필체가 저를 꼼짝 할 수 없게 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서당 훈장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때문인지 한자와 서예 등을 몸에 익힌 그였기에 목판에 새겨진 그 활자의 매력은 더욱 컸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도 잠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생계를 위해 일반 직장에 취직해야 했고 그 후 10여동안 서각에 대한 꿈을 마음 속에서나 품고 살아야 했다.

그렇다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혀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다. 틈이 날 때마다 나무를 구하러 다녔고 무언가 구상이 될 때마다 작업을 펼쳤다. 수산업에 종사하던 그는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까지 원양어선을 탔다. 비교적 시간에 여유가 있던 통신장을 맡았기에 남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10여년의 원양어선 생활에 몸이 지쳐 잠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에 발을 들인 그는 최근까지 2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다. 처음에는 당시 군(郡)이었던 여주에서 8년, 지난해 10월까지 12년간은 평택시청에서 근무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서각에 몸을 담은 것이 이맘때부터다.

1983년, 품 속에서 서각의 꿈을 꺼냈다. 당시 서울 인사동서 열린 전시회를 찾았는데 바로 '저거다'라고 생각했다. 다름 아니라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106호 각자장으로 지정된 철재 오옥진 선생의 전시였다. 오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린 것만 4차례. 하지만 고2때 봤던 그 감동을 다시 맛본 그로서 포기할 순 없었다.

"아마도 끈기를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포기할 놈인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으로서도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온 사방에 목판이 눈에 아른 거릴 정도로 '미쳐' 있었기 때문에 '포기'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직생활과 함께 주경야독하며 3년여간 오 선생에게 제대로 된 기술을 집중 사사 받았다. 최근까지도 교류하고 있으며 오 선생 외에 한글서예는 죽암 여성구 선생에게, 한문서예는 무불 선게석, 전각은 공재 진영근 그리고 사군자는 백산 유기곤 선생에게 사사 받아 왔다.

서각의 재료는 다양하다. 잣나무, 자작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등 쓰임에 따라 재료가 선택되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구가 발달 돼 왔다. 톱이나 칼의 종류만도 수십여개. 어렸을때 학교에서 판화를 한 번쯤 해봤다면 서각의 제작법을 이해하는데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에 있어 만든이의 정신과 기술연마는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에 평범함의 특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각은 그 자체로도 작품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탁본을 찍어내는 '인출용 목판본' 또한 중요하다. 그림이나 글 등을 종이로 떠내는 목판활자가 그것. 책이나 문서 등은 전해오지만 목판이 온전한 경우는 드물다. 이씨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출용 목판의 복원이다.

"얼마전 '화성전도'란 옛 지도를 구했습니다. 화성지역의 옛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 탁본된 것이지요. 하지만 목판은 전하지 않아요. 이를 그대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씨가 서각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이 마음가짐이다. 가끔 젊은이들이 찾아와 '얼마정도 배우면 돈 벌이 할 수 있나요?'란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속이 상하다는 이씨. 나무에 희망을 새기는 이씨의 서각이 여기저기 퍼지길 기대해 본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